

# 오늘에 다시 캐묻는 가족의 의미

## 앤 타일러 지음 「홈시크 레스토랑」

모든 인간에게 있어 최초의 '관계'란 역시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이다. 그 이후 형제들간의 관계와 다른 주변인물들과의 관계가 엮여지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살아나간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가장 친숙하고 오래된 관계인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서의 어머니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않는다.

앤 타일러의 최신작 「홈시크 레스토랑」은 다양한 시점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동일한 사건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되고 그것은 놀랍게도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아버지의 가출'이라는 대사건을 아이들은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나름대로 적응해간다. 그러나 가족을 이끌어가길 한 여인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싸워나갈 것 같은 미래를 의미하였다.

얼마전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는 「우연한 여행자」에서 작가는 인생이라는 험한 여정속에서 공허한 동반자로 전략해 버린 '부부'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여기 「홈시크 레스토랑」에서는 아버지의不在상황 아래에서의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묘사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특별한 날에도 한번 모이기 어렵고 어쩌다 모두 함께 모여도 끝까지 제대로 저녁식사조차 마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한 가족일 수 있는 것일까? 40년간 떠나 있다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버지, 자식과 손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도 이들의 가족일 것일까? 일년에 한두번 전화로 짧막한 대화를 나눌 뿐인 이들이 아직 '가족'의 이름으로 묶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이어져내려온 혈연 이상의 것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지나온 고통과 가난의 세월을 통해서도 잃지 않았던, 따스한 어느 봄날의 다정했던 모습. 서로의 가슴속에 공유되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이야말로 우리를 한테두리안으로 이끌어 주는 힘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他者는 나의 숨겨진 내면이 아니라 드러난 행동, 말, 표정을 통해 '나'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제일 먼저 소중한 가족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침묵속에서의 交感은 설령 그것이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대화하는 즐거움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홈시크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악의 저녁식사에서조차 즐거운 대화의 기억은 최후의 허물어짐을 막아주는 놀라운 마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안지민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민영APT 9동 304호

### 「어느 가정의 예의범절」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을 이끄는 가치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사회규범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존경의 대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시대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능력이 우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에 의해서 존경받는 대상이 나뉘기도 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기준에 의해 우리는 존경의 대상을 결정한다'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은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 무조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곧 본보

기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처신을 잘못하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는 재력이나 권력이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가진 것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승복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회규범의, 존경의 가치를 끌어내는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 좀 하고, 말해나 한다는 사람마다 오늘날의 모습을 가치관의 부재나 혼란의 시대니 하고 진단하는 것도 어찌보면 이런 연유에서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가? 요즘에는 딱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절이다'라고 말할 만큼 일관된 생활예절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관혼상제의 급격한 것에서부터 밥상머리에 예절에 이르기까지 그 속사정까지 깊숙이 들어가보면, 온통 옛것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의 혼란해지는 우리네 것이라고 하는 것과 남(외국)의 것이라고 하는 것의 뒤범벅이어서 막상 행위의 당사자들도 그것이 예절이라고 딱히 말하지 못하는 처지다. 이러한 때에 예절에 관해서 작은 등대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권의 책이 눈에 띄어 반갑다.

부부가 모두 국문학을 전공한 현직교수들에 의해 공저된 책으로 「어느 가정의 예의범절」이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크고 작은 예절에 얽힌 이야기들을 담았다. 생활예절·서울의 문화·가정교육·가정이야기·역사 속에 빛난 모상·우리말 고운말 등으로 크게는 여섯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분마다 작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열거해보자면, 밥상머리 예절부터 인사하는 법, 옷 입는 법, 몸가짐, 마음가짐, 손님대접, 가족호칭, 시간활용에 관한 조언, 자녀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혼례에 상관되는 규범들,

사람대하는 법, 사돈간의 예절, 제사지내는 법 등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에서 지켜지고, 행해지는 예의범절을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학문을 하는 사람답게 명분을 갖고, 반성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줄만한 듯 싶다. 지은이들의 삶의 방식에 한번쯤 귀기울임으로써 '예절'의 본뜻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 하성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69-1호 · 회사원

### 마타 티카넨의 「강간당한 남자」

'여성학'이라는 생소했던 학문이 주목되고, 이 분야의 박사까지 배출되는 마당에 새삼 여성문제나 여성해방이냐를 거론하는 것조차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자 혼자 늦은 밤길을 걷는다는 것조차 사회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갖 파렴치한 일 또한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재상황이다. 왜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이렇듯 피해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고찰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 책이 눈에 띈다. 1935년 핀란드에서 태어난 핀란드계 스웨덴인으로 교육자인 동시에 여류작가로 활동하는 마타 티카넨의 「강간당한 남자」가 그것이다.

토봐 텐더스는 10대의 두 아들을 둔 중년의 이혼녀로 생계를 위해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 토봐는 자신의 40세 생일날 생판 모르는 남자에 의해 성적 지옥을 강요당한다. 이후 토봐는

脱 手 作 業 선언!!

### 완벽한 페이지 조판

민기획 전산조판을 이용  
하시면, 대지작업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을 줄일 수 있습니다.



編輯教育을 받은 오퍼레이터

良質의 組版物

出版社의 대만족

전화연락을 주시면 민기획  
專用的 『電算組版活字體』  
카탈로그를 가지고 찾아가  
됩니다.

Total Publishing



한국컴퓨터그래피의 入力編輯機 PHOENIX-2000 32대,  
HCG-8305 1대, 레이저프린터 LASERSETTER-4000 <400  
dpi> 1대, LASERSETTER-COMPOSE <600 dpi> 1대, 出  
力機 NEWSSETTER <IBX> 1대, 現像機 TRISTAR 1대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 (신성 Bldg. 318 호)  
TEL. (02) 277-6077, 6078 277-1038, 1039  
FAX. (02) 277-6101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끝에 그 남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기를 결심한다.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토보는 지난 날에 자신과 가까웠던 세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상해내고, 근본적으로 잘못 시작되는 남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곧 남자들은 여자를 자신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 존재자체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자에게 의한 파시즘의 형태에서 남녀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 위에서 남자에 의한 성적 폭력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남자는 벌은 받아도, 강간당하지는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토보는 자기가 강간한, 자기를 강간했던 남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내가 한 일……. 그것은 즉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사형 집행행인에 대한 피처형자의 반란……. 모든 피해자가 사형집행인의 적이 되는 거예요"

마타 티카넨의 「강간당한 남자」는 여성심리 소설이라 이름붙일만큼 심리묘사에 치밀하다. 한 평범한 중년여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이에 대처하는 방식의 제시도 놀랍고, 이를 통한 저자의 사건분석력 또한 날카롭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의 근원을 쫓아고나 할까?

### 강운구

서울 서초구 반포2동 214동 405호 · 대학원생

### 김성동의 「집」

집은 무엇일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힘든 세상을 함께 헤쳐가는 공동체일까? 이 소설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을 내린다. 그러나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세상의 온갖 모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기에, 또 그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것이 집이기에 그렇다. 김성동의 「집」은 이 힘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그려나 과장없이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소설가 김영복은 진보적인 지식인이다. 그는 여자도 남자도 동등한 인격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김영복은 또 앞으로 올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가 여러가지 사회적인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의 가정생활은 그의 그런 생각에 여러가지로 못 미치는 것이다.

그는 몸이 허약하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는 여자에게 자기를 업고 땔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급한 일이 있으면 자기와 자기 식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설 집필에 들어가면 담배 사와라, 물 떠와라 하고 아내에게 잔심부름까지 줄줄이 시키는 그런 남편이다. 이렇게 여자에게 자신의 보호자와 시종 노릇을 동시에 요구하면서 자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봉건적이면서 무기력한 남자이다.

아내 이순실은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을 돈과 '종'으로 평가하는 남자들에게 환멸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순실은 여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양품점에 나가 일을 배우며 독립을 준비한다. 결혼해서는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전처의 아들을 기르면서 집안을 잘 꾸려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역세고 착한 주부가 된다.

그러나 '집'은 너무나 힘든 곳이었다. 시어머니만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남편도 그에 못지

않게 까다롭고 자기모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참고 순종만 하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집을 변화시킨다. 진보적인 지식인인 남편이 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식도 없는 아내가 집을 변화시킨다.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집 전체를 해방한다. 자기모순에 빠진 남편과 대조되면서 읽는 사람에게도 변화와 해방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그가 실제로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역량이 있는 탁월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이윤정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23-35 · 대학원생

### 「에세이 세계사」

「에세이 세계사」는 17~8세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의 시민혁명 시대로부터 20세기 초의 역사적 사변인 러시아혁명, 제 1·2차 세계대전기를 거쳐 20세기 후반의 제3세계의 진로와 과학기술 시대까지를 알기쉽게 다룬 책이다. 세계사에 흥미있게 접근시키고자 에세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 같으나 사실 책을 읽어보면 에세이는 결코 아니다. 다만 에세이처럼 부드럽게 기술되었을 뿐이다.

「에세이 세계사」에 있어 사관의 기초는 굳이 밝히고 있지 않으나 '역사발전의 방향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성장'인 듯하다. 이 관점은 전반부에서 무척 뚜렷하다. 영국의 권리청원과 국왕 찰스 1세의 처형,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을 논하면서 시민혁명기의 진보적 의의를 밝히면서도 그 맹점-거기에서 권리 있는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은 일정한 재산을

지닌 백인남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관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성장'이라는 인식의 기초는 일면 긍정성을 지니지만 전체적인 역사관에 있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현 시기,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역사발전의 합법적 방향은 '인간의 자주성의 성장'이다. 여기서 자주성이라는 것은 자연과 사회, 왜곡된 인식체계의 구속적 요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다. 인류사의 초기에 있어 인간을 구속하는 주된 요소가 자연적 제약이었다면 인류가 사회적으로 밀접한 집단을 구성하고 기술문명을 발전시킨 현대에는 억압된 사회체제와 왜곡된 인식이 인간을 구속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에세이 세계사」의 전반적인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사 기술부분이다. 한국사 기술의 구성비율이 적음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에세이 세계사」는 제3세계 민족운동의 세계사적 기여부분에 우리나라의 경우 3·1만세운동과 상해임정만을 대표적인 예로 기술하고 있다. 만세운동과 임정의 민족운동이 세계사적 의의에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점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더라도 당시 활발하고 치열했던 만주·간도지방의 항일무장독립운동을 간과한 만세운동과 임정만의 대표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는 세계사의 발전에 너무 나약한 기여만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식을 낳을 큰 위험이 있는 것이다.

### 이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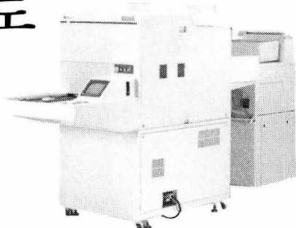
전주시 풍남동 3가 16-27 · 학생

## □ 단색 SCANART 30 II

이제는 **카메라가 아닌 스캐너로**

**촬영하는 시대입니다.**

- 저렴한 가격 실현
- 선명한 망점 재현력
- 신속한 처리 능력



### 신영프로세스

서울시 중구 초동 106-27(오양B/D4F)  
TEL. 268-3808~9

### SCANART 30 II의 용도

- ◎ 2°이내의 각종 간행물의 사진 분해 및 제판  
단행본 / 월간지 / 전집물/사보
- ◎ 더블톤(Double Tone)으로 처리되는 특수인쇄물  
인물사진/미술사진/제품 카달로그